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합친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서광주농협 임직원들이 서구 광천동 본점에서 화합의 레이스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향토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Y-MART(영암마트) 임직원들이 3·1 마라톤 대회 합친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조합직원 사기 충전 화합의 레이스”

■ 서광주농협

“부정선거 등으로 지난 8년동안 조합장이 4명이나 바뀐 정도로 반목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2010년 5월 새로운 조합장님이 취임하면서 이런 갈등과 반목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통해 직원은 물론 조합원들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서광주농협 임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서광주농협은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참가할 정도로 3·1절 마라톤대회와는 인연이 깊다. 더구나 올해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51명이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참가자 수는 전직전 3.5명당 1명꼴로 마라톤이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화합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달성한 1조5000억원의 상호금융(여·수신 합계)을 자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본점과 16개 지점을 운영중인 서광주농협은 1400여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농협 가운데 29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신용사업(상호금융)이 95%에 달하는 전형적인 도시형 농협이지만 유덕동과 동림동 일대에서 나는 미나리와 오이·마토, 밀 등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광주의 특산품이다.

문병우 조합장은 “조합금융서비스 환경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통과 판매중심 농협을 목표로 올해는 대규모 마트를 하나 더 지을 계획”이라며 “마라톤대회가 직원간 화합을 이끌어 조합 사업에 탄력

을 불어 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합을 다지는 대회인만큼 올해는 개인 기록보다는 10km와 5km에 참가하는 등 단체행동에 의미를 두고 있다. 최고령이면서도 100km 울트라마라톤을 종주할 정도의 마니아인 채수만(56)상무와 폴코스 기록을 가진 장인근(52)상무도 올해는 10km에 참가해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매년 참가했던 이선미씨가 출산휴가로 올해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김수미씨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출전하는 등 가족단위 참가자도 4쌍이나 된다.

장 상무는 “올해는 참가자의 절반가량이 사내 마라톤동호회 회원이 아니다”며 “그만큼 이번 대회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향토기업 자존심 걸고 완주 하겠다”

■ 영암마트

“향토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향토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Y-MART(영암마트) 임직원들이 제47회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새봄의 합친 질주를 펼친다. Y-MART의 역사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봉동에 위치한 8평의 작은 과일가게에서 시작된 마트는 지금은 36개의 체인점을 갖춘 향토마트로 성장했다. 함께하는 직원도 800명에 이른다.

Y-MART는 지역을 대표하는 마트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랑나눔봉사대를 결성해 불우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랑 나눔실천을 위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사랑나눔봉사대를 주축으로 한 임직원들은 이번 3·1 마라톤대회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나눔활동을 위한 각오도 다질 계획이다.

‘삼머슴’ 김성진 대표는 “함께하는 기업 위해 임직원들이 광주·전남 지역의 소외시설에 지원을 해왔다.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3·1 마라톤대회를 이번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 직원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역경제와 이웃사랑을 위해 앞장서 온 Y-MART는 올해 더 큰 무대를 위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임직원들은 3월 여수 Y-MART(여수 신월점)를 시작으로 올 한해 목표인 50점 개점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나아가 서울까지 진출해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한해를 만들겠다는 것이 Y-MART 임직원들의 2012년 목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봉사대 활동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박준호 부부장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아름드리 청과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달릴 계획”이라며 “특히 Y-MART 임직원들에게 유통을 알려주는 김영훈 스승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1 마라톤대회 완주를 하겠다”고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비빔밥 축구”의 매운 맛 보여주겠다”

광주FC 최만희 감독 출사표...내달 4일 상주 상무와 원정 첫 게임

“승점 45점을 목표로 선수들이 고루 섞인 비빔밥 축구를 선보이겠다.”

광주 FC 최만희 감독이 27일 서울 흥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리그 개막 기자회견에서 “비빔밥 축구”를 통한 승점 45점을 2012시즌 목표로 내걸었다.

16개 구단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최 감독은 “올해는 열정을 바탕으로 오래된 장맛처럼 숙성된 축구를 보여주겠다. 지난해 승점 35점을 뺐는데 이번에는 승점 45점을 목표로”며 “지난해보다 상대의 견제가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된 만큼 패기 있는 축구로 승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팀이 창단 된지 1년이 지났을 뿐 아직 신인선수들이 많아 각자의 맛을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을 고루 섞어 준다던 맛

갈스러운 전라도 비빔밥이 완성될 것이다”고 “비빔밥 축구”를 예고했다.

수원 삼성은 16개 구단 사령탑 가운데 8명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제주 박경훈 감독은 “수원이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에 안 나가는 데다 선수 보강도 잘돼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언급하는 등 올해 K리그 데뷔를 앞둔 대구의 모아시르 페레이라 감독과 포항의 황선홍 감독, 울산의 김호곤 감독 등 8명의 감독이 수원을 우승 후보로 언급했다.

최만희 감독은 11일 홈 개막전에서 만나게 되는 포항을 우승후보로 꼽았다.

한편 출범 30년째를 맞은 2012 K리그는 3월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는 오는 3월4일 상주 상

무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두 번째 시즌을 연다.

본격적인 승강제 도입을 앞두고 16개 구단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한시적으로 상·하위 리그를 나누어 경기를 치러 우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하는 ‘스플릿 시스템(Split system)’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K리그 16개 팀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30라운드까지 치른 뒤 상위 8개 팀과 하위 8개 팀으로 나눠 대결을 갖는다.

1~8위 팀이 상위리그에서 K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9~16위 팀은 하위 리그에서 경합을 해 내년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될 하위 2개 팀을 가리게 된다.

올해 K리그는 작년보다 69경기가 늘어나면서 총 352경기가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농구 최강팀 가린다

프로·아마추어 총출동 컵대회 개최

프로와 아마추어 팀들이 모두 참가하는 농구 컵대회가 2012-2013시즌 도중 열린다.

KBL은 27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012-2013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2라운드 종료 시점에 8일간 프로-아마추어 컵대회(가칭)를 개최하기로 했다.

컵 대회에는 프로 10개 팀, 대학 7개 팀과 상무 등 총 18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정하게 된다.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프로와 아마추어 팀이 같은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2004년 10월 2004-2005시즌 단관 시범경기로 1위팀 오리온스와 아마추어 선발팀이 프로-아마추어 최강전을 벌인 적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행운상 추첨



내달 1일 열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운상 추첨이 27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기한호 문화사업부장(가운데)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장태석(왼쪽)경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추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액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어,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글로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전국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일일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번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2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제+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

▲ E1 7만원

▲ E2620 10-14만원

▲ EZ5500 25만원